

소나무 재선충병, 1~2년이 고비다

현재 우리나라 산림의 가장 큰 위협군이 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여러분들도 모두 알고 계시죠? 이번 소식지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에 힘쓰고 계신 홍성천 교수님의 글을 특집으로 게재합니다. 우리모두 다시한번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에 대한 중요성을 되새겨 봅시다.



한 그루만 방제 못해도
99% 성과가 허사

소나무와 동·서·남해안의 방풍림인 곰솔(일명 해송)이 삶의 터전인 지역주민과 산주들은 요즘 노심초사하고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공들여 가꾸어 온 이들 숲이 재선충병으로 초토화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매스컴과 시민단체들도 수천 년 동안 우리 민족 정서와 자연환경의 지주였던 소나무와 곰솔을 재선충병으로부터 살리자고 아우성이다.

문제는 국민적 관심사이자 산림정책의 시급한 과제인 재선충병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에 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재선충병의 전황판단과 대응 전략이다.

필자는 재선충병의 특성상 단 한 그루, 단 한지역이라도 방제에 실패하면 99%의 방제 성과가 허사가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또 재선충병이

2005년 12월 현재 부산과 울산·경남·경북·전남·전북·제주를 비롯해 강원도 강릉·동해 등 전국 53개 시·군·구까지 확산된 점도 주목한다. 그리고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 재선충병과 장기전을 치르면 단지 소나무 숲의 생명을 일시 연장할 뿐 결코 근본 방제가 될 수 없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이런 점을 종합하면 앞으로 1~2년의 대응 전략이야말로 소나무와 곰솔 숲을 재선충병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을지, 아니면 초토화시켜 우리의 산림과 임업을 반세기 후 퇴시킬지 판가름하는 실로 중차대한 시기라고 할 것이다.

국가 재난 수준의 방제 전략이 필수적

만시지탄이지만 재선충병 확산의 주범인 재선충병 감염 목재와 감염 의심목의 이동을 차단하기 위해 2005년 10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이 발효됐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그동안 재선충병 피해를 강 건너 불구경하다시피 했던 지방 정부와 기초자치단체 및 시민들이 더러 있었으나 이제는 재선충병 피해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어느 지역, 어느 소나무도 재선충병으로부터 안전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재선충병 방제의 기본인 재선충 감염목의 조기 발견, 재선충병 감염목에 대한 완벽한 방제 처리, 인위적 확산의 주범인 재선충병 감염 목재와 감염 의심목의 이동을 차단하는 어려움과 현재의 확산 속도를 고려할 때 이젠 산림 행정부서만의 위기의식과 노력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다. 재선충병을 제대로 막으려면 정부부처 간 합동으로 국가재난 수준의 방제전략이 필수적이다.

재선충병이 상륙한 이후 지난 17년 동안 방제를 소홀히 한 기초자치단체와 방제 작업단이 있어도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았던 점이 재선충병 방제 실패의 핵심 요인이었음을 통감한다. 지금이라도 국가정책 수립 관계자들은 재선충병 방제를 성실히 실시했는지에 따라 책임을 묻는 제도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재선충병 확산의 주범인 재선충병 감염 목재와 감염 의심목을 제대로 차단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가 도로훼손 방지를 위해 도로에 '과적차량 단속원'을 주야로 배치해 성과를 높이는 방식처럼 재선충병 감염 목재와 감염 의심목 이동을 차단하기 위한 전문단속원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

아울러 국민도 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항공방제와 재선충병 감염 목재, 조정용 소나무·곰솔의 이동제한에 따른 고통을 분담하는 아량이 있어야 할 것이다. 국가정책 수립 관계자들은 앞으로 1~2년이야말로 재선충병 방제의 성패를 판가름하는 갈림길임을 통감해 보다 근본적인 방제전략을 서둘러 추진하길 기대한다.

글/홍성천(경북대 교수)

* 이 글은 중앙일보 1월 9일자에 게재되었으며 필자의 허락을 받고 본 지면에 실었습니다.